

디모데전서 2:11-15의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

신시아 롱 웨스트폴(Cynthia Long Westfall)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1년 2월 ·
2026년 10월 개정

“여자는 조용함 가운데 모든 복종으로 배울지니라. 그러나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을 것을 허락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정숙함으로 거하면 해산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독일어 성경 번역본 Elberfelder, CSV Hückeswagen판에서 번역)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CYNTHIA LONG WESTFALL

Westfall, Cynthia Long. 2016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Baker Publishing Group. Kindle판. 제9장(279쪽부터)을 번역한 것이며, 수많은 각주와 출처 표시는 생략했습니다.

바울과 성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모든 시도는 디모데전서 2:11-15와, 이 본문을 바울 서신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서신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디모데전서 2:12는 여자의 교육이나 능력이나 영적 은사와 상관없이, 교회 안의 특정한 활동과 기능에서 여자들을 배제하는 데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온 일차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자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안경, 혹은 주석의 틀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순종이 복종과 함께 여자의 소명 전체 영역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을 더 포괄적으로 주해하고, 해석의 가능성들과 특정한 해석적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함의)를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단락에 대한 일관된 읽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읽기는 에베소 문화라는 전체 맥락과 디모데전서의 맥락 – 서신이 밝힌 목적과 의도,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에 담긴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 속에서 본문을 정당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과의 흐름도 정당하게 다룹니다.

디모데전서 2:11-15에 대한 모든 해석은 하나의 해석 과정을 거쳐 본문에 대한 결론에 이릅니다. 해석자들이 해당 본문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몇 가지 중요한 주석적 갈림길 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들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 결정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비교적 검증되지 않은 가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전환점들을 부각시키고, 주석적 결정들의 함의를 논의하겠습니다. 서신의 목적이 디모데전서 1:3-4의 서두에서 말하듯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임을 확인한 다음, 저는 성별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과 관행에 대해 서신이 주는 정보를 모으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정보는, 2:8-10에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어진 지시를 읽어야 할 맥락 또는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시와 그에 딸린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문맥과 본문과 바울 신학에 부합하는, 이 단락에 대한 새로운 읽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9.1 영향이 큰 주석적 결정들

본문을 분석하기도 전에, 이미 본문의 해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석적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차이는 본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속력(권위)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견해 차이는 바울 저작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 차이는 수신자가 한 개인이나 집단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견해 차이는 본문의 의도를 규정하는 데 문맥이 하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견해 차이는 디모데전서 2:1-15의 무대 또는 시나리오를 규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각 결정 지점에서 내린 선택은 다른 선택지들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1.1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디모데전서

저는 근본적인 주석적 결정이, 본문이 교회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석자들 사이의 가장 큰 간극이며, 본문에 접근하는 자신의 방식을 분명히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학자들 대다수는 목회 서신의 바울 저작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바울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서신을 무시하거나(이것이 일반적입니다), 페미니즘적

접근들처럼 저자가 여자에 대한 1세기나 2세기의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에 지배받는 사람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문을 다른 바울 본문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대신, 다른 바울 서신과 노골적으로 모순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경의 일부이기 때문이든, 바울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든 말입니다. 바울 저작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 서신을 정경의 권위 있는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권위라는 면에서 이 책을 여전히 정경의 가장자리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바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밀한 주석 작업에도 더 기꺼이 뛰어듭니다. 그들은 본문을 다른 바울 단락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일관된(곧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납득할 수 있는) 바울 신학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9.1.2 바울 서신으로서의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1은 이 서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써 이 서신이 바울의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학자들 대다수는 이 서신이 바울이 죽은 뒤 바울 학파가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은 바울 신학의 후기 발전이나 확장, 혹은 어쩌면 수정일 것입니다. 소수는 이 서신을 역사적 바울이 생전에 쓴 것으로 보며, 목회 서신의 추가적인 전기 자료를 그의 생애 안에 배치합니다. 목회 서신은 사도행전과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에 틀을 넓히고 전기적 정보를 덧붙입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서신을 더 큰 바울 문헌 전체의 신학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평신도는 이 본문을 바울이 혼자 썼다고 생각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예컨대 누가 같은 아마누엔시스(대필자)를 써서 이 서신을 썼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울 저작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합의는, 디모데전서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 이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룬 상황과 형편은 주후 63–65년쯤이 되며, 이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오래 머문 때(행 19:10)로부터 적어도 8년 뒤이고,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주후 49년쯤 바울의 선교 팀에 합류한 때(행 16:1-3)로부터 적어도 14년 뒤입니다.

9.1.3 개인 서신으로서의 디모데전서

본문은 서신의 수신자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1:2)라고 밝히며, **형식상 이것이 개인 서신임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학자들 대다수는 디모데전서가 교회의 더 큰 집단이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쓴 공적인 서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학자들 가운데에는 바울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바울 저작을 받아들이면서도 오로지 맺음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6:21)에서 2인칭 복수가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공적인 서신이라고 논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말(1:1), 2인칭 단수의 일관된 사용, 그리고 디모데를 직접 부르는 단수 주격 또는 호격(1:18; 6:11, 20)으로 보아, 이 본문은 개인 서신의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남은 개인 서신들이 입증하듯이, 끝에 나오는 2인칭 복수 인사는 공적인 서신이나 공동체 서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수신자의 가족이나 공동체나 다른 집단에게 복을 빌거나 건강을 비는 맺음말은 개인 서신에서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서신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적이고 은밀한 서신(곧 분명히 다른 사람이 읽도록 의도되지 않은 서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개인 서신이 중요한 소식을 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읽히고 전달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서신은 대중이 아니라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와 관심사를

반영했습니다. 수신자는 서신을 해석하여 더 넓은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서신 이론에 비추어, 저는 오로지 문법을 근거로 디모데전서를 비허구적이고(곧 다른 사람이 나중에 쓴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인(“문학적”이지 않은) 서신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서신을 공적인 서신으로 분류한다면, 서신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허구적인(진짜가 아닌) 서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서신인 것처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이 공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더 넓은 대중을 위해 쓰였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뿌리를 두지도 않았으며, 에베소의 상황이나 디모데의 사역에서 생긴 문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뿐입니다. **어쨌든 저자가 보내는 신호들은 이 서신이 개인 서신으로 읽혀야 함을 가리킵니다.** 목회 서신의 언어와 문체가 어휘, 구문, 수사적 문체에서 나머지 바울 서신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 저작이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코퍼스 언어학의 최근 연구들은 장르가 바뀌거나 사용역(register)의 특징(수신자, 상황 맥락, 내용)이 바뀌면 한 사람의 글쓰기 문체와 주제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자의 형편과 나이가 바뀌거나, 서신을 비서/아마누엔시스가 함께 썼거나 전부 썼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는 바울 서신 내부의 증거를 근거로 바울 서신이 그렇게 쓰였다고 주장합니다(롬 16:22; 고전 1:1; 16:21 참조; 고후 1:1; 갈 1:1; 6:11 참조; 빌 1:1; 골 1:1; 4:18 참조; 살전 1:1; 살후 1:1; 3:17 참조; 몬 19). 실제로 에베소서와 목회 서신은 공동 저자나 아마누엔시스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유일한 바울 서신이며, 다른 서신들에서 서신을 쓰는 과정의 일부로 언급되는 인물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역의 문제에 맞닥뜨린 신뢰하는 동역자에게 쓴 개인 서신은, 바울 문헌 가운데 논란이 없는 서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용역(다른 언어 층위)을 가지며, 이것으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를 더 많은 독자가 읽도록 의도된 공적인 서신으로 분류하면, 이 서신은 나머지 바울 문헌에 더 가까운 사용역에 배정되고, 언어와 문체의 차이는 덜 쉽게 설명됩니다. 공적인 서신이나 허구적인 서신은 더 일반적인 독자가 이해하도록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쓰인 문화의 맥락 안에서 비교적 쉽게 그 자체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오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의 개인 서신은 더 높은 친밀도를 보여 주며, 그 소통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정보에 의존할 것입니다.**

9.1.4 서신의 문맥이 하는 역할

디모데전서를 꾸며 낸(허구적인) 서신 및/또는 공적인 서신으로 본다면, 문맥의 역할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곧 이 서신이 에베소에 머물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개인 서신이 아니라면(일반적으로 널리 퍼뜨리기 위해 쓴 서신[문학적]이나 가명으로 쓴 서신[허구적]과는 반대로), 그 내용을 결정하거나 설명해 줄 특정한 사건과 형편을 찾을 이유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바울 주변 인물들이 썼다고 전제한다면 문맥은 중요하지만, 그 문맥은 아마도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후대의 교회 문제들과 관련되며, 교회론에서의 후대 신학적 발전을 반영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쓴 공적인 서신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울의 확립된 신학, 곧 교회 전체를 위한 행동 규범의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서 특정한 사회적 효과를 내야 했던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룬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 일차적으로 신학으로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가 진짜 개인 서신이라고 본다면(혹은 어떤 이들에게는, 분명히 바울의 생애와 그의 개인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읽히도록 의도된 유사 개인 서신이라고 본다면), 정의상 문맥은 이 서신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과 디모데의 오랜 개인적 관계라는 맥락 속에 놓일 것이고, 정보의 흐름은 이 관계를 반영할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49년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그때부터 선교 팀에 속했고, 디모데전서가 쓰이기 전까지 아마 14년에서 16년 동안 바울과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는 이미 바울에게서 폭넓게 지도받고 배웠으므로, 디모데전서의 지시는 바울이 그에게 가르친 것을 상황에 적용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또한 1세기 중엽 에베소의 사정을 반영할 것이므로, 사회역사적 틀은 본문과 에베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뒤 문맥에 관해 말하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 문제들은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너무나 심각해서, 그는 디모데에게 남아서 그것들을 바로잡으라고 부탁했습니다(1:3). 그렇다면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이 2:1-15의 지시들을 규정할 것입니다.

9.1.5 2:1-15의 문맥 또는 시나리오

다음으로 포괄적인 주석적 결정은 2:9-15 단락에 대해 전제하는 문맥 또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결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추론에 기초한 결정이라는 사실은 흔히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제될 뿐, 근거가 제시되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2:11-15가 주간 예배 중의 교회 질서나 교회 모임에서의 행동을 다룬다고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하워드 마셜(I. Howard Marshall)은 “주제는 교회 모임에서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장을 기도라는 주제와 연관 지어 설명합니다. 마셜에 따르면, 기도의 필요성이 그 보편적 범위에서 강조되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남자들에 관해, 그다음 여자들에 관해 제시되며, 이것이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고 조용함 가운데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여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읽기의 첫 번째 문제는, 요구된 기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교회 모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2:1이나 2:8에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신학에도, 유대교와 그리스·로마 세계의 기도 관행이라는 맥락에도 이 전제에 반대되는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 쉬지 않는 기도와 모든 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롬 1:9; 엡 1:16; 6:18; 빌 1:4; 4:6; 골 1:9; 살전 5:17-18; 살후 1:3, 11; 몬 4), 이것은 교회 모임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8에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명히 ἐν παντὶ τόπῳ(“각처에서”)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표현은 공간적인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배 모임을 가리킬 때 보통 사용하는 명사 ἐκκλησία(“모임, 집회”)와 대조됩니다. 3:5, 15; 5:16이 그 예입니다(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밖의 제한 없는 언급은 롬 1:9-10; 엡 6:18; 살전 1:3; 2:13; 5:17; 딤후 1:3을 보십시오). 더욱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스·로마의 기도 관행은 거룩한 장소(성전, 신당, 회당)나 예배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강가에서, 해변에서, 배 위에서, 병상 곁에서, 혹은 감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 6:5; 행 16:13; 20:36; 21:5; 27:35; 28:8; 약 5:13-14; 골 1:3, 8). 기도는 한 달/한 주/하루 중 아무 때나, 성전과 회당과 집을 포함한 아무 장소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행 2:42-47; 3:1). 무리 지어, 가족끼리, 혹은 혼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1-8에는 문맥을 “공적인 예배”로 좁힐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가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나머지가 예배 모임이나 공적인 자리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시를 준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며, 나머지 단락의 내용도 “공적인 예배”라는 문맥에 거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한 언급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자들의 옷차림과 선행에 대한 바울의 관심(2:9-10)을 예배 모임에서의 기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주는 지시는 분명히 남자들에게 주는 지시와 평행을 이루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남자들/여자들”의 대응과, 여자들에 대한 지시를 남자들에게 대한 지시(8절)와 연결하는 부사 ὡσαύτως(“이와 같이”)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단정함,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 선행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예배 중의 기도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6에서는 이것이 에베소 과부들의 문제, 곧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대신 사치와 쾌락 속에 사는 삶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문화에서 자주 언급되던, 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런 주제들에 관해 법까지 제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예배 중 기도할 때 여자들의 옷차림이 문제였다면, 왜 바울은 정교하게 맺는 것을 금하는 대신(딤후 2:9),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할 때 베일을 쓰는 일반적인 관습(고전 11:16)을 되풀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주는 지시는 때때로, 바울이 다루는 두 번째 관심사로서 기도 행위에서는 떨어져 나왔지만 여전히 공적인 예배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2:1-3의 문맥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고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치장은 2:2에 나오는 기도의 목표, 곧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2:10에서 바울의 관심은,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이 기도의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남자들에게 주는 지시와 평행을 이룹니다. 분노와 다툼도 2:2에 나오는 기도의 목표, 곧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에베소의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 평안하고 고요한 삶, 거룩함과 경건 – 를 거슬러 행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해독제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9-10의 배경으로 예배 모임이라는 무대를 상정할 때 생기는 네 번째 문제는, 2:11에서 복수 “남자들”과 “여자들”에서 단수 “여자”(γυνή)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2:12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ἄνδρoς)에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바울이 금한다는 점입니다.** 단수로 바뀌는 것은 하나의 패턴을 깨기 때문에 문맥에서 눈에 띄며, “남자”에 단수를 쓰는 것은 교회 모임이나 다른 집단을 향해 말하는 언어에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여자가 남자들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여자들이 남자들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수의 사용은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사적인 상호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사적인 상호 작용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 단락에는 가정이라는 맥락을 가리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는 단수의 사용을 마치 없는 것처럼 다루지만, 그것은 의미를 지닌 분명한 문법적 선택이며, 문맥의 문법과도, 공동체를 향해 말할 때 쓰는 문법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이 단락의 배경으로 예배라는 틀을 상정할 때 생기는 다섯 번째 문제는 해산(τεκνογονία)에 대한 언급과 한 여자의 구원(σωθήσεται)에 대한 특별한 관심(2:15), 그리고 그것이 예배 질서와 금지 규정에 대해 가지는 의심스러운 관련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σωθήσεται δὲ διὰ τῆς τεκνογονίας)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 가능성(과 대안적 번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1-15의 틀로 예배를 선택하거나 전제하는 것은, 본문의 까다로운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문맥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모순과 일관성 부족을 낳습니다. 본문의 첫머리는 바울의 서신이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것임을 암시하지만, 여기서 예배 중의 행동이 문제라면 그것은 여담이 되고, 바울은 4-6장에서 거짓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2:11-15를 불필요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의 탈선으로 분류합니다. 이 단락의 문법과 자세함은 모두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락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주는 지시보다 더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단락은 서신 뒷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과 여자들의 행동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2:1의 논리적 연결어 παρακαλῶ οὖν πρῶτον(“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은 단절을 만들고 다른 관심사로 넘어가는 대신, 이 단락을 앞의 내용과 연결합니다. 이것은 2:1-15가 서신의 주제, 곧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1:3)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9.1.6 “주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αὐθεντέω / authenteo)

성별 문제와 관련하여 디모데전서 2:11-15를 해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가운데 하나는 2:12의 αὐθεντέω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αὐθεντεῖν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하팍스 레고메논(신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며, 헬라어에서 이 동사가 나타나는 가장 이른 알려진 용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Thesaurus Linguae Graecae(TLG)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뒤의 용례가 300개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9년에 캐서린 크뢰거(Catherine Kroeger)는 αὐθεντέω를 “권위를 가지다”로 번역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썼고, 이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동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사가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번역하거나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몇 가지 핵심 질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 동사는 권위의 행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동사는 **경멸적입니까, 중립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이 동사는 그 동족어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몇몇 예외를 빼면)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αὐθεντέω를 “권위를 행사하다” 또는 “...에 대해 권위를 가지다”라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번역합니다. 다른 무리는 그것을 “남용하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또는 “폭력을 행사하다”처럼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의미로 번역합니다.

이 논의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은 αὐθεντέω가 “목사가 되다”를 뜻하는 전문 용어라고 전제합니다. 이것이 여자들을 목사직과, 남자들에 대한 그 밖의 지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일차적인 정당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LG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동사의 300개가 넘는 용례 가운데, 목사나 교회 일꾼이 한 개인이나 집단을 호의적으로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를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콧 볼드윈(H. Scott Baldwin)이 이 단어가 “권위를 가지다”를 뜻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82개의 용례 가운데, 한 남자가 사역이나 교회 지도라는 맥락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의 무리에게 이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사가 인격적인 목적어, 곧 행위의 대상을 가질 때에는 (문맥에서 대상이나 표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대상이 당하는 행위의 종류에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헬라어 어휘에서 동사 αὐθεντέω는 살인이나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 여러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해를 입거나, 자기 뜻에 반하여 강요당하거나, 적어도 자기 이익을 무시당합니다. 그 행위들은 대상의 뜻을 거슬러 주체의 뜻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범위는 모욕에서 치명적인 폭력에까지 이릅니다.** αὐθεντέω(여기서는 “행사된 폭력”으로 번역)의 흥미로운 용례가 칼케돈 공의회(주후 451년)에서 바시아노스

(Bassianos)가 제기한 고소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불법적인 절차로 주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강제로 주교에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법이 분명히 기준이 됩니다. 교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호되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그 직분을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며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 제 말을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 무모한 일이 저질러졌을 때, 그들은 강제로 제 방에 쳐들어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제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의 뜻에 반하여 파괴적인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며(소돔과 고모라와 불의한 자들), 집행자였던 절대 권력자들과 관리들(예컨대 사형 집행인)에게는 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의 언제나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여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금한다고 해서, 흔히 전제하듯이 남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2:12와 가장 가까운 평행 본문은 크리스스토무스(Chrysostomus)의 골로새서 설교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alpha\upsilon\theta\epsilon\nu\tau\epsilon\iota\nu$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크리스스토무스는 남편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아내가 너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너는 $\alpha\upsilon\theta\epsilon\nu\tau\epsilon\iota\nu$ 하지 말라"(μὴ τοίνυν, ἐπειδὴ ὑποτέτακται ἡ γυνή, αὐθέντει). 이 단락에서 크리스스토무스는 이상적인 남편을 사랑하는 ἄρχων("지도자/통치자")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둔 행위는 남편이 법적/문화적 가정 통치권을 사랑으로 행사하는 것일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에 찬 가정 내 권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 "부부간 폭력"이라는 말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로마의 paterfamilias가 가진 권리의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크리스스토무스는 남편의 역할을 묘사하려고 ἄρχων을 사용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바울은 $\alpha\upsilon\theta\epsilon\nu\tau\epsilon\omega$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내가 paterfamilias에 견줄 만한 권위를 차지하고 학대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역할 전도의 경우에,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뜻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권위 행사에 관한 여러 그리스-로마적 모델 및 성경적 모델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0:25에서 묘사하신 이방의 권위 모델(특히 카이사르)과 일치합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οἱ ἄρχοντες]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 위에 폭군 노릇을 한다."** 이런 절대 권위의 행사는 로마의 paterfamilias가 아내와 자녀에 대해 가졌던 생사여탈권,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남편이 가진 권리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이라는 성경적 권위와도 일치합니다. 이 동사는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재위 기간에 교황의 권위를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의 어떤 성경적 권위와도 양립할 수 없으며, 바울 신학에 따라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권위와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지도 모델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지도 모델에도 어긋납니다. **이 동사를 단지 "권위를 가지다"로 이해한 다음, 마치 그것이 섬기는 지도력이나 목회적 돌봄을 묘사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극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동사와 디모데전서 2:12가 교회에서 여자들을 여러 형태의 지도력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되는 일차적인 근거이므로, 이 금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αὐθεντέω에 어떤 의미를 택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사전학과 언어학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과제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때 의지하곤 했던 19세기 사전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증거가 풍부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해 줄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과 언어학 이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αὐθεντέω라는 단어를 근거로 여자들을 교회 지도자 직분에서 배제해 온 데 대한 책임(또는 죄책)을 질 때가 되었습니다.

9.1.7 창세기 2-3장의 내러티브¹ 요약이 지니는 의미

결정적인 주석적 결정 하나는, 여자에게 배우라는 명령(2:11)과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금령(2:12)의 근거가 되는 디모데전서 2:13-14의 창세기 2-3장 이야기 요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거가 뒤따른다는 것은 13절의 접속사 γάρ(“이는...때문이라”)가 보여 줍니다. 그러나 금령과 구약 이야기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추론해 내야 합니다.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활기를 띠었으며, 바울 문헌이나 신약 전반에서 하나의 모티프나 암시나 인용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다양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그 구절을 그 문맥 속에서 해석하거나 원래 저자의 의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데 점점 더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야기의 요약이 문제이므로, 바울의 짧고 수수께끼 같은 요약을 해석하는 데 창세기 이야기를 끌어와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디모데전서 2:12의 “여자가 가르치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오로지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에 규범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슈라이너(Thomas Schreiner)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13을 근거로 든 것은 바울이 자신의 금지를 초월적 규범 안에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바울의 창조 묘사는 초월적 규범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의 축약된 요약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담의 우선성”을 보여 준다는 슈라이너의 결론을 어떤 이들은 규범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시간적 순서가 문제가 되는 다른 경우들에서 먼저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규범이 된 적은 없으며, 그는 창세기 기사에서 그런 결론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으며(이야기를 해석할 때 전형적인 일입니다), 아마 수신자는 이 이야기가 당면한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규범적 적용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만 **초월적 규범**(시대를 넘어 유효한 질서)을 끌어온다는 전제는, 그가 구약과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수한 것에서 일반화하며, 일반적인 것을 개별 사례에 적용합니다.** 그는 타락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4의 계명을 장로들의 보수에 적용했을 때, 개별 사례를 일반화했습니다(딤후 5:18; 고전 9:7-9 참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하고 기도할 때 베일을 쓰는 문화적 관행을 지지하기 위해 창조 기사에서 나온 “초월적 규범”을 사용했습니다(고전 11:3-16). 그는 장차 “주의 백성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므로,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구성원에게 어떤 사소한 송사에 대해 판단을 내리라고 권했습니다(고전 6:1-3). **바울이나 다른 누군가가 창조 기사나 구약의 다른 본문의**

내용으로 상황에 따른 적용이나 문화에 특정한 적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의 시대를 초월한 원리들에서 적절하고 시대에 맞는 적용을 찾는 오늘날의 해석학과 설교학 실천에도 어긋납니다.

바울은 “한 여자”가 배워야 한다는 명령과,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령을 뒷받침하려고 창조 이야기의 몇몇 부분을 요약합니다. 이 요약을, 여자가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규범적 금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딤후 2:11-14).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의 여자들 사이에 퍼진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민간에 널리 퍼진 해로운 신화에 올바른 이야기를 맞세워 그것을 바로잡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형론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또는 아내와 남편을 위한 교정의 가르침이나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그것이 스스로 제시하는 그대로 읽으면, 여러 가지 점이 이 창조 요약이 디모데가 맞닥뜨린 문제들을 바로잡는 데 쓰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 나이 든 여자들이 들려주던 신화들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4:7; 1:4 참조).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 널리 알려진 한 신화의 내용을 짧게 바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에베소에는 바로잡아야 할, 여자들과 관련된 다른 구체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서의 잘못된 행동(2:9-10; 5:6, 15),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험담과 뒷말, 이야기나 신화를 퍼뜨리는 일(4:7; 5:13), 그리고 성과 결혼과 자녀에 관한 거짓 가르침을 포함하여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4:3; 5:14 참조; 딤후 3:6-7)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이 금지들은 새롭고 강조하여 제시된 정보처럼 읽히며, 이전 서신들의 명령이나 금지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디모데전서를 바울의 생애 안에 자리매김하는 설득력 있는 재구성들 대부분에 따르면, 디모데는 10년이 넘도록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고, 바울의 관행과 전통을 가르치는 믿을 만한 교사였습니다. 이 서신이 허구이든,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상관없이, 이 금지들이 바로 이 서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수수께끼입니다. 이 단락의 목적이 이방인 선교의 모든 교회에서 행해진 바울의 관행을 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넷째: **본문이 이것이 개인 서신임을 보여 주므로, 이는 초월적 진술을 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맥락입니다. 곧 바울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 나타난, 영적 은사와 리더십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의 일반적 적용을 무효로 만드는 진술 말입니다.** 여자가 교사로 일하거나 지도하는 사역을 맡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려 했다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같은 문서가 더 논리적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더 이른 시기의 문서였고,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에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의 12:3-8에서 그는 가르침과 섬김에 집중합니다. **로마의 한 여자는 자신에게 그 은사가 있다고 믿는다면, 로마서 12:7-8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라는 위임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따르면 로마 교회의 여자들은 그들의 수고로 두드러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11-12에 주어진 지시가 바울의 교회들에서 본질적인 관행이었다면, 로마서 12장이 그런 성별에 따른 자격 조건을 알릴 자리였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창조 기사를 다시 들려주는 방식으로 교회 안의 개별 문제들을 바로잡거나 가르칠 수 없었다고 가정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창조 기사를 문화적 관행을 가르치는 데에도 사용하며(고전 11:3-16), 다른 초월적 규범들도 특정한 목적에 맞게 적용합니다.

9.1.8 요약

디모데전서의 성격과 바울 저작에 관한 주석적 결정은 디모데전서 2:11-15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을 신뢰하고 그것이 스스로 제시하는 그대로 읽을 때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본문은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 서신임을 보여 줍니다. 서신 전체와 그 부분들은 본문의 주장, 파피루스 문서들의 유사 사례, 서신 이론과 언어학 이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잘 아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 서신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 줍니다. 우리는 이 서신이 상황에 매우 밀착되어 있고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꼼꼼히 연구하면 맥락과 그 밖의 정보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나 바울의 관행 및 신학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은 가정과 해석과 시나리오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것들이 일관성이나 연결성에 기여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1-15의 경우, 기도의 실천이 예배나 모임을 가리킨다는 통상적인 가정을 내려놓고, 서신이 밝힌 목적에 비추어 디모데전서 2:1-15를 읽어야 합니다.** 그 밖의 결정적인 판단으로는 αὐθεντέω의 논란이 되는 의미, 그리고 창조와 타락에 대한 암시가 디모데전서 2:11-12에서 한 여자에게 배우라는 명령과 “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행동에 관한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가 있습니다. 해석자들이 덜 고민하는 결정은 디모데전서 2:15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진술이 문맥과 맺는 논리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을 그 문맥 안에서 일관되게 읽으려면 이 결정도 다른 결정들과 연결해야 합니다.

바울 저작에 관한 견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본문 전체를, 특히 디모데전서 2:9-15를 마치 허구인 것처럼 해석하며, 맥락과 목적을 알려 주는 정보가 지닌 의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개연성 있는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신학을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데보다 메시지의 의미에 있다면, 본문을 그것이 스스로 제시하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서신이 쓰일 때 어떤 효과나 결과를 거두려 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9.2 서신의 목적

디모데전서를 진짜 서신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서신의 목적을 서신 본론의 첫머리에서 찾을 것입니다. 존 화이트(John White)에 따르면 “서신 본론의 서두는 보통 서신의 주된 계기가 밝혀지는 자리이다. [...] 서신의 서두는 그 뒤의 내용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놓는다.”

9.2.1 서신에 밝혀진 목적(1:3-20)

서신의 서두는 1:3-20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된(다른) 가르침을 퍼뜨리지 말라고 명하라고 디모데에게 전에 맡겼던 임무를 1:3-4에서 되풀이하고,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를 넓혀 갑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한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도 말라고 명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 이

지시는 1:18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거기서 디모데는 이 지시에 근거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9.2.2 에베소 이단의 성격

이것이 공적인 서신이었다면, 저자는 아마 서신의 서두에 거짓 가르침과 그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경고만 하고, 이미 알려지고 주어진 진리에 호소할 뿐입니다. 다행히 에베소의 거짓 가르침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관한 단서가 4장에서 6장 사이에 몇 가지 있으며, 이를 모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침의 내용보다 그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성격에 대한 묘사가 서신의 서론에 있다면, 서신의 목적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전개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서신이라면,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나 공적인 서신이라면 필요했을 세부 사항을 디모데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과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리고 그 교사들과 퍼져 가던 가르침의 내용이 일으킨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들을 **하나의** 이단으로 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나 양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남자들에게 특유한 것으로, 다른 문제들은 여자들에게 특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2.1 남자들 사이의 이단

남자들 사이의 거짓 가르침과 관행은 바울에 대한 반대, 분노와 다툼, 그리고 돈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일로 특징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3-5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다르게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맞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말다툼에 병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끊임없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남자들의 기도에 관한 지시는 2:1-7의 일반적인 기도 지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관심사는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마셜(Marshall)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조가 “거의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이는] 이 생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에 대한 반대는 율법에 관한 유대교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바울은 1:7-11에서 이 가르침을 짧게 바로잡습니다. 그다음 2:8에서 남자들은 명시적으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6:3-5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의 주요 특징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지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다만 부를 얻는 데 대한 집착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같은 특성들, 곧 폭력과 다툼을 좋아함과 돈을 사랑함은 3:3에서 감독의 자격 요건에서 배제되며, 돈에 대한 탐욕은 남성 집사들의 자격 요건(3:8)에서도 언급됩니다.

9.2.2.2 여자들 사이의 이단

여자들 사이의 이단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결과로 생긴 몇 가지 문제 있는 관행과, 집집마다 전해지던 신화와 족보(γενεαλογίαι)와 파괴적인 말들의 확산이 포함됩니다. 4:1-5에서 바울이 마지막 때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한 것은 에베소의 문제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이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 이 경고가 여자들, 특히 과부들 사이의 문제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딤후 4:1-5]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이는 자기 양심이 마치 낙인 찍는 쇠로 지진 것처럼 무뎠던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맥락에서 거듭 나타나는 거짓 가르침의 핵심 요소는 여자들을 고의로 속이는 일, 그 속임에 귀신의 활동이 있다는 언급, 그리고 혼인 금지입니다. 혼인 금지에는 결혼한 여자들 사이에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일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6-7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매우 비슷해서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들이 집 안의 여자들을 노리고 그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슬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죄를 잔뜩 짊어지고 온갖 욕심에 이끌려, 늘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5:13-15에서 젊은 과부들을 묘사하면서, 그들 중 몇몇이 “이미 돌아서서 사탄을 따랐다”고 비판합니다. **독신의 가르침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아이를 낳는 일의 가치와 위험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하지 않으려는 몇몇 과부들의 뜻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미 출산의 엄청난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던 여자들에게 끌리는 힘을 발휘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성관계를 포기하고 그렇게 아이 낳기를 거부함으로써 타락의 결과를 되돌리려 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 안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신의 장려는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해방적 경향”을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과 달리,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의 문제는 이미 2:9-10에서 다루어집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바람직한 소박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피해야 할 단정하지 못한 차림, 곧 화려하게 땀은 머리와 금과 진주와 값비싼 옷이 포함된 차림과 대조합니다. 5:6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과부들 사이의 한 문제를 가리키는데, 이를 이런 종류의 단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삶[σπαταλῶσα ζωσα]을 살려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필립 타우너(Philip Towner)가 말하듯, 이는 “2:9에서 묘사된 여자들을 분명히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따라서 9-10절의 권면 전체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한 무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이들에게는 외적인 과시를 강조하고 정숙함이라는 문화적 규범을 거부하는 새로운 로마 여성이라는 떠오르는 흐름이 강한 매력이 되었다.”** 여자들의 이런 단정하지 못한 행동은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큰 걱정거리였고, 단정하지 못하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을 금하는

일이 때로는 법으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로마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슷한 비판을 베드로전서 3:1-7에서도 봅니다. 그러므로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대한 우려는 기도라는 주제와 관계없는 문제를 반영합니다. 에베소의 과부들이 그런 사치의 과시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독립과 부와 통제권(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혹시 있을 자녀들에 대한 것까지)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침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신화와 족보)을 되풀이하고 험담과 비방을 집집마다 퍼뜨린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상당히 분리된 문화, 곧 여자들이 여자와 소통하고 배우고 교제하는 문화에서 여자들 사이의 매우 실제적인 사회적 양상을 반영합니다. 여자들의 연결망은 소식이 퍼지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신화와 족보의 확산은 디모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합니다. 1:4의 서신 서두에서 그것은 거짓 가르침과 같은 수준에 놓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이런 이야기들에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4:7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나이 든 여자들[γραιώδεις]이 전하는 망령된 신화들을 멀리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이 든 여자들은 흔히 문화의 이야기꾼이며, 화롯가에서 그리고 잠자리에서 되풀이되는 신화와 옛이야기와 전승을 통해 문화를 대대로 전해 줍니다.** 캐롤린 오시크(Carolyn Osiek)와 마거릿 맥도널드(Margaret MacDonald)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전 문화에서는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서 들려주던 교훈적 이야기들이 결국 **외경** 복음서와 사도행전들로 일반 전승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리처드 크뢰거와 캐서린 크뢰거(Richard and Catherine Kroeger) 같은 몇몇 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왜곡하는 특별히 유대적인 신화들(1:7-11 참조)을 가리킨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나그 함마디(Nag Hammadi)의 영지주의 문서(아마 2세기의 것)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자들의 구전 문화 안에 그보다 앞선 신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유대적 영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망령된 이야기와 전승은 에베소의 이교 문화에 뿌리내리고 혼합주의(뒤섞임)를 담고 있던 전통적인 지역 신화와 전승이 이어진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험담이나 비방을 집집마다 퍼뜨리는 일을 과부들의 문제로 부각하며(5:13), 비방은 여성 집사들에게 금지된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3:11). 흥미롭게도 3:11에서 “비방하는 여자”라는 단어는 διάβολος입니다. 이는 여자들 사이의 문제 있는 행동을 마귀와 연결하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연상입니다.

9.2.2.3 요약

디모데전서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1:3b-4). 어떤 남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고, 그 거짓 가르침의 결과는 남자들 사이의 폭력과 다툼이었으며, 아마도 사역을 통해 돈을 버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몇몇은 귀신적 또는 사탄적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들이 여자들을 노리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결혼과 아이 낳기를 피하라고 가르쳤고,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서 단정하지 못하고 화려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는 돈을 향한 남자들의 욕구에 짝을 이루는 것이며,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과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자들은 또 문제 있는 이야기들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신화와 족보뿐만

아니라 험담과 비방도 속했고, 이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이어지며 집집마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자들 자신이 “마귀들”(διαβόλοι, 비방하는 여자들)이 되었습니다.

9.3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2:1-15)

거짓 가르침의 성격과 신화와 족보의 확산을 고려하면, 2:1-15의 세 단위가 디모데가 맞서 싸우는 문제들에 대한 해독제를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자들은 소박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지시를 받으며, 여자들은 가정에서의 영적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9.3.1 남자들 사이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2:1-8)

바울이 신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 2:3-7에 따르면 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의 복음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으며, 그래서 기도는 바울에 대한 반대에 맞서는 역할을 합니다. 2:2b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씁니다. 이 결과는 디모데가 에베소의 남자와 여자들의 행동에서 맞닥뜨린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다음 2:8에서, 타우너가 관찰하듯이 “바울은 모임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다룬다. 가정 규례를 본떠 그는 먼저 남자들[남편들]에게 말하며 권위 있게 말한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해독제이며, 분노와 다툼이라는 남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9.3.2 여자들을 위한 적절한 옷차림이라는 해독제(2:9-10)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딤후 2:2)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여자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려는 시도에 대한 해독제로서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2:9의 “이와 같이”(ὡσαύτως)는 여자들에게 주는 지시가 남자들에게 주는 지시와 나란히 놓여 있음을 알려 줍니다. 또 2:9는 정동사 “내가 원하노라”(βούλομαι)를 2:8에서 남자들에게 주는 지시와 공유합니다. 그러나 옷차림에 관한 지시는 여자들의 기도에 대한 요건이 아닙니다(이 지시는 옷차림을 기도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의 행동 가운데 한 부분에 대한 나란한 해독제입니다. 이 지시는 독자적으로 서 있으며,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에게 대한 우려를 다룹니다. 그 우려는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의 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사치스러운 삶은 화려하게 땀은 머리와 금과 진주와 값비싼 옷을 걸치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지시는 적절한 옷차림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여(2:9), 이어서 보완적인 해독제로 넘어갑니다. 곧 여자들이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하라는 격려입니다(2:10).

9.3.3 여자들 사이의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지시(2:11-15)

가장 강하게 강조되고 가장 많은 설명이 붙은 이 단락의 중심은, 집 안에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여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집집마다 퍼지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집에서 영적으로 배우라고 지시합니다. “여자는 [집에서 건전한 가르침을] 조용히,**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2:11). 가정이라는 자리는 복수(여자들)에서 단수(여자)로의 전환으로 드러납니다. 각 여자가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언급도 가정이라는 맥락을 가리키며, 이는 창세기 2장의 결혼 제정에 대한 언급과 아이의 출산에 대한 언급으로 확인됩니다. 디모데는 각 남자가 자기 아내의 영적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바울의 기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이 단락은 바울 전통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의 지시와 뚜렷한 유사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율법도 말하는 것같이 복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2:11-12] 여자는 [집에서 바른 가르침을] 조용히,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자기 남편을 지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잠함/조용함에 대한 지시(σιγάτωσαν, ἡσυχία), (2) 말하기/가르치기에 대한 금지(λαλεῖν, διδάσκειν), (3) 복종 또는 자기 절제의 언어(ὑποτασσέσθωσαν, ἐν πάσῃ ὑποταγῇ), 그리고 (4)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집에서 배우는 것(μαθεῖν, μανθανέτω). 동사 μανθάνω(“배우다”)의 반복은 가장 뚜렷한 유사점이며, 두 본문 사이의 다른 유사점들을 푸는 열쇠입니다. 두 본문 모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기대되던 문화적 행동의 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곧 그녀가 활동하던 가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본문은 바울의 관행이 남편에 의한 아내의 가정 내 영적 교육을 장려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가르침이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여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방해가 되도록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질문이 있거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각 남편이 집에서 아내의 질문에 답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신학적, 성경적 이해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적어도 몇몇 여자들에게는 공적인 가르침과 권면, 곧 교회의 가르침과 권면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적절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교육 수준과 교육 관행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실에 맞게 사회화되지 않았습다. 이는 또한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가정 규례가 정해 놓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복종과 배움의 언어는 가정 규범(가정 규례)이라는 더 큰 맥락과 바울 교회들의 상황에 들어맞습니다. 분명히 가르침이 필요했던 여자들은 집에서 “배우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태도는 1세기에 소년들의 교육에서 기대되던 것과 같았고, 소녀와 여자들의 가정 교육에서 기대되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12에 따르면 바울은 아내가 역할을 뒤바꾸어 집에서 남편의 결정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멘토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로 이 한 경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가르치거나 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2:11이 가정의 영역과 교사-학생 관계를 말하므로, 2:12의 가르침 금지도 같은 가정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울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책임의 역할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에베소 여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연속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의 금지가 강조되어 맨 앞에 놓입니다. 그다음 바울은 여자가 남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그의 뜻을 거슬러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어쩌면 가르침에서의 역할 전환에 대한 우려는, 아내가 남편을 자기 통제 아래 두는 완전한 역할 전환에 대한 더 일반적인 우려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거짓 가르침과 해방된 여자들에게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고, 부유한 여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과부들 사이에서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과부와 아내들이 상속으로 부유했다면 역할 전환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아내가 상속으로 얻은 힘 덕분에 집안을 지배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자들이 상속녀이기 때문에 다스린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배는 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두정에서처럼 부와 권력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문화적 이상이 아니었으며, 남편들과 교회를 공공연히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역할 전환에 대한 바울의 금지는 아마 세 가지 관심사를 반영할 것입니다. **첫째**, 여자들은 신화와 족보의 근원이며, 바울은 남성들에게 집에서 아내를 가르치라고 요구함으로써 바로 이것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신화와 족보는 널리 끌리는 힘이 있었고, 여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조차 그것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교회 안의 여자들이 남성들의 역할과 행동을 넘겨받을 때 생겨날 오명과 부정적인 문화적 평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의 이른바 부적절한 행동을 근거로 한 종교를 공격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셋째**, 결혼과 교회 지도와 권위에 관한 바울의 모델은 반문화적이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에게 남용된 힘과 통제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alpha\upsilon\theta\epsilon\nu\tau\epsilon\acute{\iota}\nu$ (지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의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 문화의 눈으로 볼 때 아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잘못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alpha\upsilon\theta\epsilon\nu\tau\epsilon\acute{\iota}\omega$ 의 의미 범위에 들어맞을 것이며, 남자에게 결혼 밖의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특히 비난받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행에 대한 어떤 정당화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3-14의 창세기 2-3장에 대한 언급은 여자들의 영적 교육의 필요성과 거짓 교사들에 의한 여자들의 미혹이라는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사탄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5:15). 2:13-14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먼저 아담이 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 아담은 미혹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아내가 완전히 미혹되어 경계를 넘은 사람이 되었다.” **문맥을 고려하면, 바울이 창조와 타락에서 모형론적 유사점을 보여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해독제, 곧 남편에 의한 아내의 영적 교육은 적어도 순서에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것에 상응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귀신적/사탄적 거짓 교사들에 의한 여자들의 미혹은 뱀에 의한 하와의 미혹에 상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신화들의 내용을 짧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여자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쟁점에 대한 관련 성경적 배경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곧 타락이 출산에 가져온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2:13-14의 기능이 무엇이든, 우리는 디모데전서 2:15의 출산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창세기 2-3장을 요약하면서 끌어들이는 이야기의 틀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타락이 여자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창세기 3:16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임신의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갈망은 네 남편을 향할 것이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처음 독자들은 출산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창조와 타락 이야기의 연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정하셨는지에 대한 진술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출산을 둘러싼 주제들은 에베소의 문제들과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의 증가, 여자들이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의 증가, 그리고 남편에 의한 아내의 지배가 속합니다. 결혼을 금하고 아이 낳기를 막은 거짓 가르침은 타락을 되돌리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의 여자들에게 끌리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임신이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은 여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고대 여성 종교의 한 공통점은 출산 때에 도움과 보호를 얻기 위해 마술과 제사와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자들은 필요한 보호를 거짓 가르침을 통해, 또는 그 안에서 찾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널리 퍼진 마술의 관행과 아르테미스(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아데미’) 숭배는 사도행전 연구에서 에베소의 초기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에베소 신자들이 마술 두루마리를 불태운 일(행 19:18-19)과 은장색들의 소동(19:23-40)에 대한 누가의 기록 때문입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운 일로 지역 마술과 초기 기독교의 혼합주의가 모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고 결론짓기보다는, 이를 마술이 서민들 사이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그리고 몇몇 신자들이 기독교로 회심한 뒤에도 계속 마술을 행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마술은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계속 문제였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출산과 산파 일에서 그들은 검증된 지역의 “민간요법”에 계속 기꺼이 의지했습니다. 이교의 관행에서 그것은 자연 의학과 마술이 떼려야 뗄 수 없게 섞인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에베소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가 출산의 여신이었고 일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아르테미스 숭배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습니다. 폴 트레빌코(Paul Trebilco)에 따르면, 그 숭배가 지속적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은 주후 104년의 살루타리스(Salutaris) 비문이 증언합니다. 이 비문은 서른한 개의 상을 들고 가는 화려한 행렬을 묘사하는데, 그중 아홉 개가 아르테미스의 상이었습니다. 이는 2주마다 열린 도시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가이 맥클린 로저스(Guy MacLean Rogers)는 여신의 탄생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로마 세계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지닌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의 감각”에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2주마다의 행렬이 사람들에게 “에베소에서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탄생을 ... 바라보도록”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이 인간이 일으킨 모든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실재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해를 키우도록” 말입니다. 스트라본(Strabo)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은 그녀가 사람들을 ἀρτεμέας 하게 만든다는 사실에서 왔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아르테미도로스(Artemidorus)가 말하듯 ὑγιής(건강한)입니다. 더 나아가 아르테미스의 칭호 가운데 하나는 Σώτριά(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 타티오스(Achilles Tatius)는 “그러나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가 그 둘을 구원하였다”고 씁니다. 이는 일상의 헬라어에서 σῶζω(구원하다)로 아르테미스의 도움과 치유와 보호를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출산 같은 삶의 영역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23-27이 바울을 아르테미스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숭배를 겨냥하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아르테미스 숭배에서 돌이켜 떠나게 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진술(딤후 2:15)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출산이 여자들에게 의미하는 실제적인 위험(산모 사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해산할 때 아내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를 사랑과 거룩함과 자기 절제로 대하라는 명령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들 둘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자기 절제와 함께 머물면, 아내는 안전하게 출산을 지나게 될 것이다.” [웨스트폴(Westfall)의 책] 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11-15가 가정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 머물면”에서 “그들”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아내가 집에서 받는 가르침을 다루는 2:11에서 이미 두 사람이 시야에 있습니다. 2:12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며, 2:13-14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형론적으로 그들을 대표합니다. 산모 사망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는 데 남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편이 자녀의 수를 정할 때와 출산하는 동안 돌볼 때 아내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는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 잦은 임신을 막는 데 결정적이며, 잦은 임신 또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해석에 다가갈 때 우리는 저마다 결과를 좌우하는 주석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개인 서신이므로, 독자는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많은 것을 본문에서 추론해야 합니다. 서신의 맥락에 대한 가장 좋은 단서는 본문 자체가 제공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는 것이 아마 서신 전체의 목표일 것입니다(딤후 1:3-4). 4-6장에 묘사된 거짓 가르침의 문제들과 그와 관련된 질문들은 2:1-15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지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어진 단락을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바울의 일차적 관심은 분노와 다툼에 있으며, 그는 서신의 후반부에서 이를 자세히 다룹니다. 논쟁과 다툼에 기우는 이런 성향은 매주의 예배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2:9-15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논란 많은 단락도 예배라는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일종의 가정 규범(가정 규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곧 가정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각 가정에서 남편이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영적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함께 일하는 것을 금하는 대신, 에베소의 신자들이 성숙하고 건전한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제자도의 결함을 다룹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결혼과 성과 출산에 직접 관련됩니다. 이는 바울이 서신의 뒷부분에서 여자들 사이의 문제 영역으로 지목하는 주제들입니다. 바울은 출산이라는 시련에 미치는 타락의 결과에 대한 여자들의 매우 실제적인 걱정을 다루면서 그의 지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약속과 실제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합니다.

후기

제 번역은 2021년에 급하게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에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이 짧은 바울 본문에 관해 웨스트폴(Westfall)을 통해 여러 가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독일어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만 적어 둡니다. 개별 해석들에 대한 서평은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1956년: 성경 해석의 이 노장에게는 분명합니다. 가르치는 여자들에게 대한 제한은 오로지 역사적 맥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한은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평판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별과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은사와 그의 섬김입니다.

로렌츠 오버린너(Lorenz Oberlinner), 1994년, Herde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² (방대하고 철저하며 많은 것을 알려 주지만, 역사-(성경)비평적임)

“목회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드러나므로(3:7; 5:14; 6:1; 딤후 2:5, 8, 10 참조), 목회 서신의 바울이 그리스도인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집과 가정의 고요함 속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덕스러운 여성이라는 이상’을 따른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 이상은 헬레니즘-로마의 관념에도, 유대의 관념에도 부합한다.”³

“우리 단락을 사실에 맞게, 그리고 목회 서신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려면, 이 지시들로 이어진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교회의 형편을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⁴

“여기에 표현된 여성들에 대한 지시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 그 지시들의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서도, 그 영향사의 가능성과 한계와 관련해서도 그러하다.”⁵

하인츠베르너 노이도르퍼(Heinz-Werner Neudorfer), 2004년,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HTA). 저는 이 시리즈를 독일어로 나온 것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제 Logos 버전에서 이런 좋은 주석을 약 15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이도르퍼는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가 여자들의 공적인 기도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도 여기서 주로 교회 예배를 위한 지시를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 그는 이 단락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해석을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많이 짚어 줍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짧게 개관합니다. 이런 논의가 이만큼 자세하고 오래 이어진 것을 저는 영어권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개관의 상황은 이제 20년도 더 지난 것입니다.

한스 뷔르키(Hans Bürki), 1983년, Wuppertaler Studienbibel

뷔르키는 모든 지시가 어떤 남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읽을 만하며, 서신의 맥락을 부각합니다.

형제운동: 다비(Darby) (Synopsis, 19세기), F. B. 홀(F. B. Hole), 아렌트 레머스(Arend Remmers) (1986년), 윌리엄 맥도널드(William MacDonald) (1989년)

형제운동의 주석들은 **모두** 문화적 맥락, 에베소의 상황, 서신의 개인적 성격이 그들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해설들은 오랫동안 제 생각을

형성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점에서 일치합니다.

(주로) 예배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 위에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근거를 얻습니다.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페미니즘으로 봅니다.

본문은 단순하고 분명하다고 합니다.

홀(Hole): “첫째, 하나님은 창조 때 남자에게 우선권과 지도권을 주셨다. 이것이 13절에 언급된다. 그다음에 타락 때 일어난 일, 곧 하와가 주도권을 잡았다가 미혹된 일이 이어진다. 이것이 14절의 내용이다. 이 단락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런 의심도 없다.”⁶

맥도널드(MacDonald):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창조에 근거함으로써, 여기서 문화적 문제를 다루고 있을지 모른다는 모든 생각을 배제한다.”

그러나 웨스트폴의 연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따른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 대응책을 설명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머물던 에베소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아주 짧은 언급은 시대를 초월하는, 또는 초월적인 창조 질서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언급은 해당 여자들을 위한 유비, 곧 비교하는 예로 쓰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건전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집에서 아내를 가르쳐야 했던 남편들과 비교됩니다.

하와는 에베소의 몇몇 여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계명을 받은 아담이 그 계명에 대해 하와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도 암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미혹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창조에 관한 에베소의(나중에는 영지주의의) 신화들이 바로잡히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몇 마디를 창조 질서로 격상시키는 사람은 여자를, 곧 모든 여자를 미혹되기 쉬운 성별로 만듭니다. 마치 남자는 미혹되지 않거나 덜 미혹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는 것은 성경 전체의 그림과 모순됩니다. 성경에서 남자들은 여자와 똑같이 미혹되고 속기 쉽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담을 자동으로 머리나 지도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창조된 동물들도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하면, 마지막에 지음을 받은 하와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경우에 따라 차이를 만들지만, 위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내가 더 높고 남편이 그 아래에 있다고 결론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위계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은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의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병행 본문에서 바울은 위계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이 결론을 무효로 하거나 미리 막습니다. [고전 11:11-12]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대체로 신약성경의 원어를 아는 많은 해석자는 이것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본문에서 그토록 광범위한 가르침과 지도의 금지를 끌어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형제운동의 해석자들은 모든 여자에게 종속된 자리를 지정하고 모임에서 잠잠할 것을 부과하는 일에서 서로 앞다투어 경쟁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여자들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순전한 페미니즘입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 누구도 왜 출산까지 언급되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웨스트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녀는 이 주제가 바로 거짓 가르침(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지고 숭배받던 에베소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제 눈에 뚝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운동의 해석자들이 결국 이 엄격한 가르침 금지(이렇게 해석한다면)에 스스로 놀라워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행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매들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애써 강조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당한 대상이 특정한 여자들의 무리, 또는 심지어 특정한 한 여자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 둡니다. 남자도 여자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가르침을 통해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신약성경은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2:12는 가르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쌍을 다룹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통해서도, 남자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한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집에서든 모임에서든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여기서 “사람들”은 인간을 뜻합니다(헬라어 ἄνθρωποι, anthropoi). 곧 남자와 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여자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아주 자주, 그리고 강하게 적용되고 사용됩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서로 만나는 모든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들이기도 합니까? 남자들은 바울의 이 지시를 얼마나 문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이어서 본문을 하나 제안합니다. 저는 바울의 본문을 제 말로 자유롭게 옮깁니다. 짧고 간결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가능한 만큼만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룬 웨스트폴(Westfall)의 통찰을 반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8-15, Hans-Jörg Ronsdorf의 풀어 옮김:

사랑하는 디모데여, 에베소에서 몇몇 남자와 몇몇 여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는 모든 곳에서. 공개적으로. 신화와 거짓 가르침을 두고 다투는 대신에. 분노와 다툼은 기도를 막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다툼과 폭력에서 깨끗한 손, 들어 올린 손, 열린 손, 받는 손으로 함께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특히 부유한 여자들이 어디에 나타나든, 어디에서 눈에 띄든 소박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장은 공들인 눈에 띄는 머리 모양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과 진주여서도 안 되고, 값비싸고 별난 옷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단장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고, 흔히 다른 여자들을 앞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여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그런 방식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치 있고,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단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여자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기 집에서. 특히 이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나는 이 모든 거짓 신화와 가르침을 계속 퍼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남편을 지배하고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건전한 가르침을 설명할 때 그녀는 들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녀에게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집마다 신화를 퍼뜨릴 때 이 무지는 큰 해를 끼칩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이 상황에 꼭 맞는 예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를 가르쳐야 했던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속았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녀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에베소의 몇몇 여자들도 남편에게서 기꺼이 배우지 않으면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와처럼 속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울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미혹되었고 그 결과 출산의 큰 고통이 왔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에베소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인 부부로서. 여자들은 아이 갖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성적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너무 많은 임신이 아내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Hans-Jörg Ronsdorf, 2021년 2월 26일, 2026년 10월 개정

주

1. **내러티브 본문**(narrativer Text)이란 어떤 행위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디모데전서 2:13-14에 나오는 창세기 2-3장의 짧은 재서술을 가리킵니다.
2. Oberlinner, L., **Erster Timotheusbrief**,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Herder, Freiburg; Basel; Wien 1994
3. Oberlinner, L., 83–84쪽.
4. Oberlinner, L., 85쪽.
5. Oberlinner, L., 89쪽.
6. Hole, F. B., **Grundzüge des Neuen Testaments**, Christliche Schriftenverbreitung, Hückeswagen 1989, 1380쪽.